

## '갯벌생태해설사' 26명 최초 선발

- 갯벌생태 전문해설인력 양성으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6월 20일(금) 올해 최초로 운영된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을 통해 총 26명의 갯벌생태해설사를 선발했다고 밝혔다.

'갯벌생태해설사'는 갯벌을 찾는 관광객과 탐방객을 대상으로 갯벌생태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역사, 문화, 사회적 특징까지 폭넓게 설명하는 생태관광 전문인력이다.

우리나라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다. 이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은 갯벌의 가치 홍보와 지역 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들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기본 교육과정(80시간)을 이수한 뒤, 1차 필기시험과 2차 해설 시연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되었다. 향후 생태 해설, 교육 및 홍보, 탐방 안내 등의 수요가 있는 갯벌복원사업지, 습지보호지역 등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.

해양수산부는 갯벌생태해설사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 올 하반기에는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, 유사 자격\*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 교육과정(30시간)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.

\* 갯벌생태안내인, 바다해설사, 해양환경교육사, 자연환경해설사 등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"갯벌생태해설사는 해양생태자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,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관광을 이끄는 전문인력"이라며, "해설사들의 활동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.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해양환경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현성 (044-200-5310)
	해양생태과	담당자	사무관	명수한 (044-200-5327)
<협조>	해양환경공단	책임자	센터장	정현아 (051-400-7760)
	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	담당자	차 장	강성훈 (051-400-7762)
			과 장	김민서 (051-400-7780)

### 참고

### 교육과정 사진



현장실습(염생식물)

현장실습(조류 / 탐조)

현장실습(저서생물)

이론교육(강의실)